



소개

더 컬렉터블

다섯 번째 캡슐 컬렉션:

뉴욕에서 선보이는 8 가지 빈티지 리베르소 워치

핵심 내용:

- **더 컬렉터블 전시:** 2 월 5 일부터 23 일까지 뉴욕 부티크 익스클루시브 이벤트를 통해 선보이는 엄선된 컬렉션 피스
- **리베르소에 초점:** 1930 년대 진귀하면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8 점으로 구성된 세심한 큐레이션의 캡슐 컬렉션
- **정품 인증 및 복원:** 예거 르쿨트르 복원 워크숍 워치메이커들의 정교한 수작업

예거 르쿨트르는 수집가들을 위한 더 컬렉터블의 다섯 번째 캡슐 컬렉션을 공개합니다. 이번 컬렉션은 1931 년부터 1937 년 사이 제작된 여덟 점의 진귀한 리베르소 워치로 구성되었습니다. 20 세기 워치메이킹의 '황금기'에 매뉴팩처가 선보였던 상징적인 모델 중 하나인 리베르소는 시대를 초월해 가장 널리 사랑받으며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으로 손꼽힙니다. 뉴욕은 아르데코 건축과 스타일 유산을 간직한 도시로, 아르데코의 정신과 디자인 가치를 대변하는 진귀한 타임피스를 선보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

더 컬렉터블은 워치메이킹 황금기에 탄생한 타임피스들을 엄선하고 복원하여 선보이는 예거 르쿨트르의 인하우스 프로그램입니다. 약 200 년에 걸친 창의성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그랑 메종의 유구한 헤리티지를 조명합니다. 1920 년대 중반부터 1970 년대 초반까지를 아우르는 듀오플랜, 리베르소, 지오피직, 퓨처매틱, 메모박스 폴라리스 등 17 점의 상징적인 모델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으로 공개되는 모델들은 수집가들로 하여금 그



역사와 이야기를 이어갈 새로운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헤리티지를 향한 이러한 헌신은 매뉴팩처 자체 복원 워크숍 덕분에 가능하며, 이와 같은 전문 시설을 갖춘 브랜드는 업계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이곳에서 10 명의 마스터 워치메이커는 오리지널 모델의 특성과 파티나를 보존하는 동시에, 무브먼트를 점검하고 구성 요소를 수작업으로 제작하거나 진귀한 헤리티지 아카이브에서 찾아낸 부품을 사용하여 각 피스를 정교하게 복원합니다. 뮤지엄급 복원과 인증을 거친 각 타임피스는 이제 발레드주에서 시작된 고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귀한 리베르소 워치의 캡슐 컬렉션

더 컬렉터블의 다섯 번째 캡슐 컬렉션은 리베르소가 탄생한 1931 년 이후 초기 10 년의 역사를 탐구하며,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의 기틀이 된 핵심 요소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워치메이킹의 형식을 새롭게 정의하다: 1931 년에 탄생한 리베르소는 인도에서 폴로 경기를 즐기던 영국 장교들이 시합의 혹독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형태와 기능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리베르소는 독특한 회전 케이스와 슬림한 아르데코 라인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탄생 당시의 현대적인 정신을 상징하는 리베르소는 스포츠 워치라는 한계를 빠르게 뛰어넘었습니다. 특유의 매력으로 트렌드 세터들을 사로잡았으며, 남성과 여성을 위한 다채로운 모델로 진화하며 그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스타일과 기술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해 온 것은 물론, 메탈 소재의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젼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독특한 디자인은 리베르소의 변치 않는 매력 중 하나이자 아르데코 스타일의 아이콘으로서 수집가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리베르소 스토리를 장식한 여덟 점의 빈티지 타임피스:

- 실버 다이얼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 블랙 다이얼을 채택한 **리베르소 1931** 의 디자인은 당시 '미래의 다이얼'이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레일웨이 미닛 트랙과 사다리꼴 형태의 인덱스는 오늘날 리베르소 트리뷰트 디자인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는 오리지널 리베르소의 유산이 현대의 모델들과 어떻게 끊임없이 공명하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 1936 년에 선보인 **투톤 스틸과 9K 옐로 골드(350/1000) 리베르소**는 예거 르쿨트르가 리베르소 전용으로 처음 개발한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버 410** 이 장착되었습니다. 1933 년에 출시된 이 칼리버는 6 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를 도입하며 워치메이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이미 자체 칼리버 개발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리베르소에는 타반(Tavannes) 무브먼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그랑 메종은 남성용 모델에 칼리버 063 과 064 를, 여성용 모델에는 칼리버 050 과 051 을 탑재했습니다. 이는 리베르소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한 전략적이면서도 일시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투톤 케이스는 골드에 한층 단단한 메탈을 결합해 내구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그 결과 전체 골드 모델보다 견고한 시계가 탄생했습니다.
- 남성용 라인을 완성하는 **1937 년 스몰 세컨즈 리베르소**에는 그랑 메종의 네 번째 인하우스 리베르소 무브먼트인 **칼리버 413** 이 장착되었습니다. 블랙 다이얼에 새겨진 'Jaeger-LeCoultre'라는 이름은 1937 년 르쿨트르와 예거 메종의 역사적인 합병을 기념하는 동시에 이 모델이 생산된 연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줍니다.
- 여성용 모델은 리베르소가 탄생 초기부터 폭넓은 사용자층을 아울렀음을 보여줍니다. **18K(750/1000)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로 제작된 리베르소 1931 담(Dame)** 모델은 화이트 골드 크래들에 옐로 골드 러그와 케이스를 갖췄습니다. 특히 미닛 트랙을 대신해 네 모서리에 장식된 코너 브래킷은 현재 리베르소 원 컬렉션으로 계승된 상징적인 디테일입니다.
- **리베르소 1931 담(Dame) 더블 시그니처**에는 열처리 공정으로 색을 입힌 블루 핸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시계 제작 방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다이얼에 새겨진 진귀한 더블 시그니처는 극소수의 엄선된 리테일러에게만 한정 수량으로 공급되었음을 보여주며, 다이얼 위에는 이들의 이름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 이번 컬렉션에는 **코르도네 브레이슬릿의 리베르소 1931** 처럼 매우 독특하고 여성스러운 모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되는 가느다란 로프 형태의 스트랩은 이번 모델에서 크롬 소재로 구현되었으며, 독특한 형태의 러그로 케이스 양옆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기하학적인 브래킷에 블랙 스트랩 또는 브라운 송아지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두 가지 리베르소 1931 담(Dame)** 모델은 출시 당시 매우 현대적인 시도로 평가받았던 블랙 다이얼을 통해 특유의 그래픽적인 디자인을 선사합니다.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에서 선보이는 모든 타임피스에는 예거 르쿨트르 아카이브의 발췌본과 *더 컬렉터블* 북을 비롯하여 메탈 브레이슬릿 모델을 제외한, 각 워치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새로운 수공예 가죽 스트랩과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해당 피스의 오리지널 워치 박스와 보증서, 오리지널 스트랩 또는 브레이슬릿도 함께 제공됩니다.

뉴욕에서 선보이는 다섯 번째 더 컬렉터블 캡슐 컬렉션

다섯 번째 더 컬렉터블 캡슐 컬렉션은 2026 년 2 월 5 일부터 23 일까지, 뉴욕 매디슨 에비뉴 701 번지에서 선보입니다. 매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더 컬렉터블 타임피스는 2 월 5 일부터 예거 르쿨트르 웹사이트(jaeger-lecoultre.com)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으며, 전시 기간 동안 뉴욕 부티크에서 독점 판매될 예정입니다. 더 컬렉터블 북 또한 예거 르쿨트르 웹사이트와 모든 부티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